

마을만들기
금상





‘자연과 함께 사람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

아미산 자락에 위치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문성마을은
농촌융복합산업과 마을기업을 기반으로

760년의 마을 역사에 더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주민주도로 새로움에 적극 도전하며 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성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문성길 34
- 인구수(가구) 62명(32가구)
- 마을자원 서당공, 옷된장, 옷순고추장, 마을축제,
마을기업 서당골, 서로돌봄사업,
인이지 농경단, 자연담화 공동체 등



문성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전경(깨끗한 농촌마을과 계단식 논밭)

문성마을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마을 쇠퇴, 농업의 가치 하락 등으로 희망을 잃고 의타적으로 유지되는 마을이었으나 주민들 스스로 마음을 새로이 하여 마을발전 3단계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9년 수립한 계획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여 2025년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 실천의 과정은 마을과 주민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면적의 92%가 산과 밭으로 이루어진 문성마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옷나무 소득숲을 조성하고, 서당마을 대표 발작물인 서당공과 융합하여 옷된장·옷순고추장을 개발하였습니다. 서당공은 마을 소득을 주도하고 있는 문성마을의 대표적인 소득원천으로서 서당공을 이용하여 2018년 특허 받은 옷된장 등 농특산물 생산·가공·판매와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다양성 창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예 주민제·귀농인의 집·농산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실시한 결과 2009년 24명에 불과했던 마을 주민이 2023년 62명으로 늘어났고, 마을 소득 또한 2011년 평균 650만원에서 현재 2023년 평균 3,8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00명의 주민이 월 소득(1일 2시간 주5일) 100만원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자는 '100x100x100 프로젝트'는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귀농·귀촌인 그리고 도시민이 참여한 다양한 공동체 조직과 사회적경제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문성마을은 소득의 대부분을 농촌 경관 형성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연금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주도의 배려·동행·창조·전진의 정신으로 마을을 가꾸고자 합니다.



▲ 마을기업 서당골



▲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조리교실



▲ 귀농인들과 포레스트 가든 만들기

마을발전 중장기 계획과 다양성 촉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4개의 상위공동체와 9개의 하위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 규범에 따라 각각의 조직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서당골은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전 주민 마을연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이지 농경단은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을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연담화 공동체는 귀농인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농촌관광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며 농촌마을의 새로운 문화복지사업을 창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농인 농산업 창업 지원(자연담화 공동체)



▲ 마을연금 지급

760년의 마을 역사에 새로운 100년을 더하다
자연과 함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문성마을

행복마을
NEWS

**농업을 농산업으로 전환해 농업 활성화
지리적 특성 살려 옷나무 소득 숲 조성
개발 상품 특허 등록, 소득원천으로
건강한 100세 위한 프로젝트 추진**

문성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마을사업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주민주도로 마을발전 3단계 5개

년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

정부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소득공동체 마을기업 서당골은 농가 92%가 참여하고, 농가별로 650만원을 출자하여 지속적인 상품 개발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은 농

촌융복합산업과 우수마을기업 인증을 받는 등의 형태로 인정받으며 마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문성마을은 앞으로 배움과 나눔의 문화·복지 사업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평생직장의 꿈을 마을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

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우수활동기

우수공무원



▲ 서당공 두부만들기 체험프로그램(마을기업 서당골)

“
마음,
마을이 되다
”

소득 원천 창출과 주민의 평생직장

마을주민 92%가 참여하고 참여 농가별 650만원을 출자한 소득공동체 마을기업 서당골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며 농촌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2021년 우수마을기업 인증을 받았고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및 꿈길진로체험처로 지정되었습니다.



▲ 마을 생산 제품



▲ 주민 재능 나눔 활동



▲ 행복 향기 세상 속으로(마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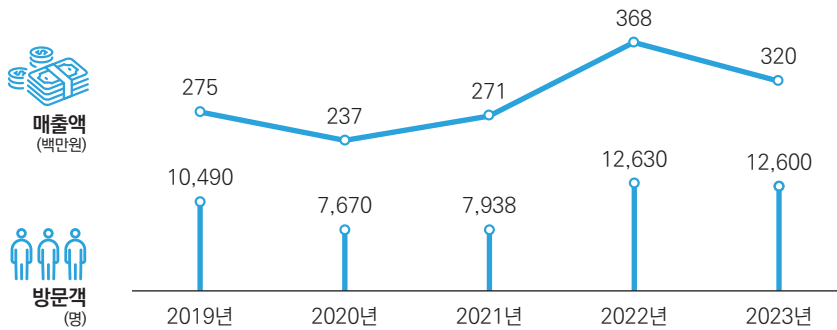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과 창의적인 마을 정책

정부지원사업의 활용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덤방 만들기’라는 별칭으로 사업을 계획 및 시행하였습니다. 덩방은 웅덩이의 전라, 충청도 방언으로 물이 차면 필요시에 나눠 쓰는 덩방의 기능을 차용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을 이와 같이 공유의 기반으로 인식하여 주민의 쉼터·일터·놀이터가 되는 사회적경제공동체의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과 연계하여 소비자 참여형 농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문성마을은 농촌경관을 유지하여 깨끗한 자연과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2015년부터 주민주도의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고 채워서 나누자’라는 농촌마을 배움나눔사업 등으로 마을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자 행복향기를 세상 속으로 전개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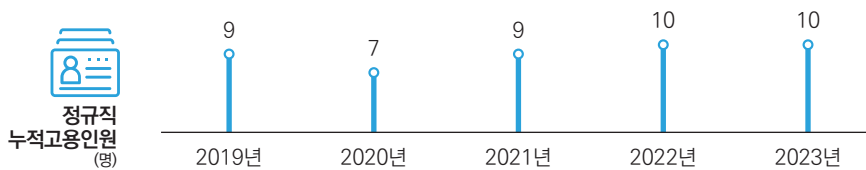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체험소득 및 방문객



일자리 창출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1.03 ~ 2025.12 문성마을 발전계획 사업비 386백만원/15년 주관기관 문성마을 - 경관·주거 환경 개선 - 자원의 소득화 - 생활 속의 문화·복지	2014.12 ~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사업비 35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공동체 소득 사업 - 자원의 소득화 사업	2016.01 ~ 2025.12 100×100×100 프로젝트 사업비 30백만원/년 주관기관 문성마을 - 다양한 사람들이 안정된 소득으로 100세 시대 향유	
2016.06 ~ 2021.12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250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 마을 주민 92% 참여	2019.03 ~ 2023.12 농촌마을 자율·종합개발사업 사업비 1,55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순천시 - 마을 환경 개선 및 주민 복지 관련 사업	2021.01 ~ 최상의 복지 평생직장 만들기 사업비 84백만원/년 주관기관 문성마을 - 스스로 만든 직장에서 내려놓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직장(마을기업) 고용	2022.01 ~ 마을연금사업 사업비 20백만원/년 주관기관 문성마을 - 취약계층 연금 지급